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FY09 1/4분기, 생·손보사 실적 희비 엇갈려

- FY2009 1/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실적은 17조 5,16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.2% 감소한 반면, 손해보험회사의 보유보험료는 11.5% 상승한 9조 7,291억 원을 기록함.
 - 생명보험의 보험료 감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변액보험 등과 같은 투자형 상품의 신계약 감소에 따른 것임.
 - 반면, 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등 개인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장기손해보험의 비중도 57.9%를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(FY06 50.6% → FY07 52.1% → FY08 54.2%).
- 생보사의 1/4분기 당기순이익은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투자손익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1.2% 상승한 7,009억원을 기록한 반면,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지급보험금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3.7% 감소한 5,579억 원을 시현함.
 - 생명보험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(ROA)과 자기자본이익률(ROE)이 각각 0.1%p, 1.7%p 상승한 0.9%와 12.6%를 기록함.
 - 반면, 손해보험에서는 당기순이익 감소로 ROA와 ROE가 각각 전년대비 0.9%p, 5.9%p 하락한 3.0%와 20.8%로 나타남.
 - 총 22개 생보사 중 18개사가 흑자를 시현하였으며, 손보사 30개 중에서는 23개사가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.
- 회사규모별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는 생·손보사 모두 중소형사의 비중은 소폭 상승한 반면, 대형사와 외국사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생보 외국사의 경우 본사의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점유율이 21.4%에서 20.9%로 0.5%p 감소하였으며, 손보 전업사 및 외국사의 비중은 0.6%p 감소한 15.4%의 비중을 차지함.

(FY09 1/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(잠정)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건전경영팀, 8/20)